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05
Vol. 540

행복 일터
●○○
Intro
위험은 무릅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희망 일터
○●○
굿&굿 워라밸
마스크 만들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힐링 일터
○○●
미디어 속 노동읽기
영화 〈정직한 후보〉와 노동의 단상

Contents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은 5월.
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번호에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꼼꼼하게 살펴봐요.

04

08

10

16

20

24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40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2020. 05
vol.540

행복 일터

Intro
위험은 무릅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 28

Topic
우리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 32

Info
새 얼굴의 산업안전보건법안전을 부탁해! — 36

System
'안전 일터' 고민하는 사장님을 위한
똑똑한 제안 — 40

Plus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위한
안심 제도 — 44

Post
필승! 안전순찰 나왔습니다! — 48





희망 일터

인생 2막 — 52
우리도 언젠가 늙을 텐데요
– 마포노인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사 강천호 씨

명장의 시간 — 56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
결국 기술과 사람
– ㈜세종기술단조욱제 대표

굿&굿 워라밸 — 62
마스크 만들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더불어 세상 — 66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신발'을 소개합니다

기술이 힘! — 68
100세 시대, 새로운 기술로
나를 재발견하세요!

인생설계카드 — 70
요즘은 애견미용이 대세!

정책이슈 — 74
고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 뉴스 — 76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 78
영화 〈정직한 후보〉와 노동의 단상

시사백과 — 82
비대면 채널자를 위한 필수 단어장

직장탐구생활
앞좌석이냐
뒷좌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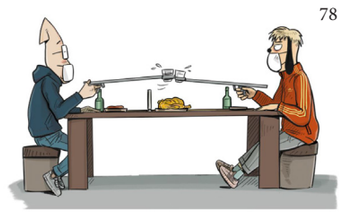
고민타파
일자리도 불안정한데,
임금까지 불안정하면 쓰나요

저녁이 있는 삶
사회적 거리 두기 갑갑할 땐
취미키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상식
치약에 가글까지 하시면 누런 이가
됩니다만…

주말에 뭐 할래?
아이들과 함께하는 '으른의 달'

애독자 모의고사



위험은 무릅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린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 날 등
인간미 넘치는 온갖 기념일이 잔뜩 몰려있는 5월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깥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달인데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일하는 엄마, 아빠는 물론
다 큰 자식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겠죠?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역시 법의 보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일 나간 가족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꼼꼼히 알아볼게요!

10
착해진 산업안전보건법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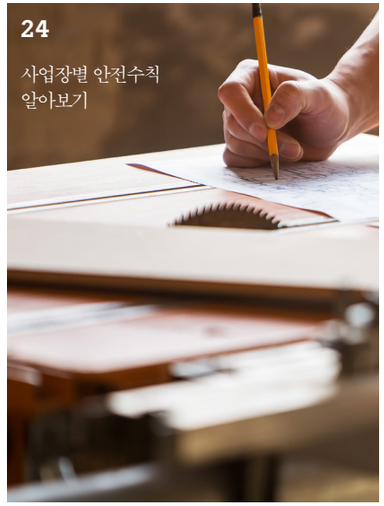
16
책임 무거워진
사업주를 위한 제도



20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위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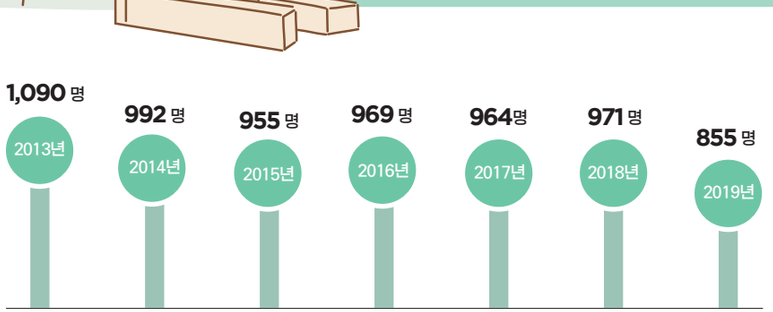
24
사업장별 안전수칙
알아보기





우리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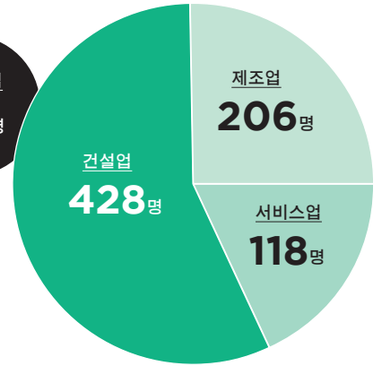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수많은 사고들은 아직도 우리들 마음 속에 생채기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수치로 살펴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도 대비 116명이 감소한 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를 보인 결과지만, 여전히 천여 명에 가까운 아까운 목숨들이 일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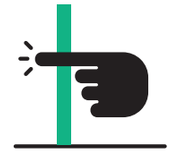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역시 그 뒤를 이으며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은 다치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많아 주의를 요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위
넘어짐



2위
떨어짐



3위
끼임

지난 5년간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은 주로 넘어짐, 떨어짐, 끼임 순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발생형태들은 몇 년간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들이 안전한 일터를 위협하고 있죠? 넘어짐이나 추락, 끼임 등에 대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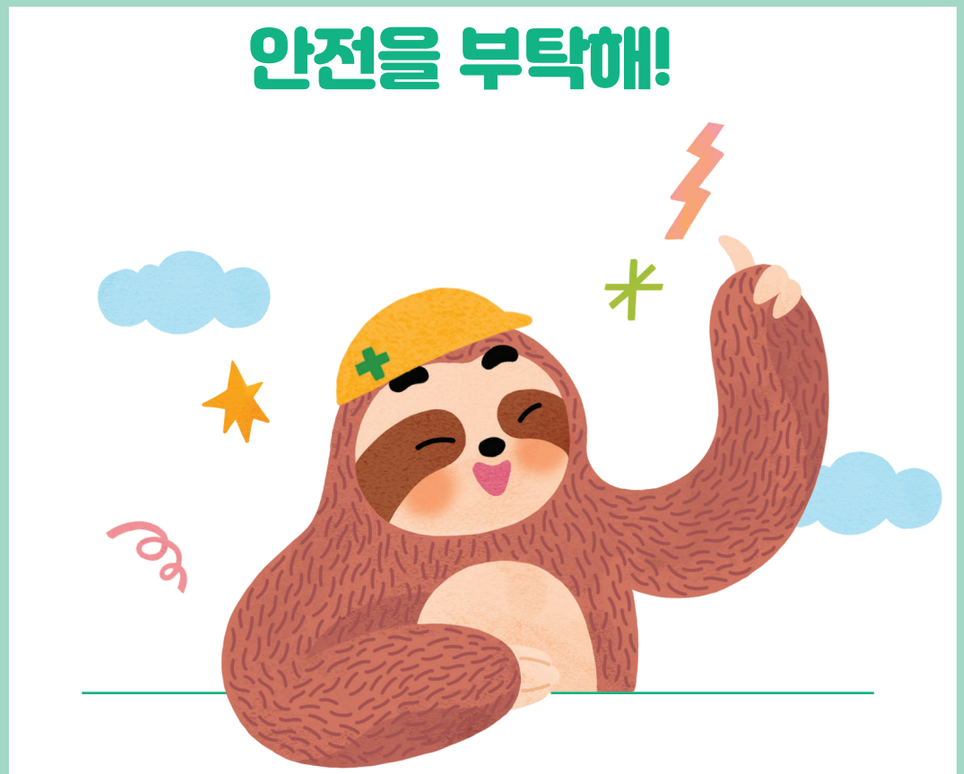
일하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 능력 등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981년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28년만인 지난 해 1월, 개정안이 공포되며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일터,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된다면 사망률 제로를 기록하는 날도 멀지 않습니다.



새 얼굴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현장의 안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깜박이 없이 갑자기 뛰어드는 난폭운전자,
술김에 핸들 잡는 음주운전자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준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보다 더 안전한 일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요 포인트만 알면, 어려운 개정안도 술술술~ 풀려요!

"하청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해요



새롭게 태어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은 있었지만 하청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의 위험한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의무 등을 강화했어요.
원청 사업주 외에도 대표이사, 건설공사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했어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회사 또는 시공 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들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 · 확인 · 이행해야 합니다. 외식업, 편의점 등처럼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 역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해요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대형업체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도급’이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명시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도금작업, 수은 · 납 ·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청업체가 보유한 전문기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내도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가 ‘일부 위험장소에서 원청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의 일부 위험장소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원청은 사업장 밖이라도 붕괴 위험이 있거나, 추락 · 붕괴 · 감전 등의 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화학물질 함유량, 더 이상 영업비밀에 부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은 백혈병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공개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자율에 맡기다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근거로 비공개로 전환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을 하다 질병이 생긴 근로자들은 자신이 아픈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모든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공개가 영업비밀의 노출로 이어져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등처럼 요즘은 새로운 유형의 근로 형태가 참 많습니다. 택배기사나 음식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적지 않고요. 특정 기업에 속해있진 않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아쉽게도 기존의 법률이 정하는 보호대상 안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6일부터는 이들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대상이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된 건데요.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의 특성상 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는데요.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개정 법률을 ‘불편해진 규제 강화’로만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일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하면 처벌 받아요!

5년 내 2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사업주는 가중처벌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한 것이 그것인데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급인이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 일터’ 고민하는 사장님을 위한 똑똑한 제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방호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설구축을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안전 일터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검증을 받은 보호구 착용이 필수겠죠? 기능이 전혀 없는 보호구는 있으나 마나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호장치나 보호구를 만드는 업체에게 제품설계비 또는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해 제품의 안전성능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원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 보호구 제조등록업체로,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내)을 각각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위험한 소규모 사업장, 밀착 관리해드려요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석면 등처럼 유해인자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주로 밀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보건관리요령을 지도하거나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따로 챙겨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석면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를 통해 직업병의 발생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련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입니다.

위험한 기계 안전한지 꼼꼼하게 봐드려요

프레스, 절단기, 크레인 등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부터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데요. 안전인증을 제조업체 스스로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이에 정부는 동종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외에도 내가 제작하는 기계가 안전한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S마크, 임의 안전인증). 이러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 신청하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성 확보 제도

S마크 제도 : CNC 선반, 밀링기 등 산업용 기계 및 부품류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 설계 · 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근로자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신체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때가 있죠.
정부는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기초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까지 가능해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센터별로 탄력적 운영)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 해드려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고자 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주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다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무려 10억 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후에는 사업장에 유해 · 위험요인은 없는지 사후 기술지도도 실시해요!

클린사업장 조성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주는 사업인데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건설현장 역시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과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같은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에 사용된 총 금액의 50%를 넘길 수 없으나(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 매칭펀드 방식), 10인 미만 제조 · 서비스업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은 50~65%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잘 하면, 산재보험료를 낮춰드려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사업주라면,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이 적용된답니다.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지원대상인데요.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에는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이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요.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감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활동

인정 유효기간 : 3년 | 인하율 : 20%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인정 유효기간 : 1년 | 인하율 : 10%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주가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

인정 유효기간: ~2021. 6.30까지 | 인하율 : 10%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위한 안심 제도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장치 때문이든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든
어떤 이유라도 속상하기는 매 한가지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게 된 근로자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장해로 인해 지금껏 해왔던 업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생계 걱정까지 더해져 눈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산재장해등급(제1급~12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실업 중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산재장해근로자라면, 상담 등을 거쳐 직업훈련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내용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은 1인당 2회까지(총 12개월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신청 : 최저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하다 다쳐 한동안 직업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없다면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소정의 보증료만 납부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연리1.25%,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중 선택)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취업안정자금 · 사업자금 · 주택이전비 등은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한도
의료비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1천만 원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 받은 자	
차량구입비	- 산재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1천 5백만 원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진폐위로금 지급

진폐위로금은 2010년 진폐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상 급여인데요. 기존 진폐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 사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위로금이 통합된 개념입니다. 지원대상은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인데요. 진폐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평균임금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진폐고시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위로금은 진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는 물론, 퇴직을 이미 했는데 뒤늦게 장해급여 대상이 된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진폐고시임금) X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진폐위로금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고가 아니더라도 폐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먼지가 폐에 쌓여 결국 폐가 굳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진폐는 완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 · 은, 연 · 아연, 규석, 흑연, 활석)에서 1년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폐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진폐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정밀건강진단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송료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업재해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라면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망 근로자의 유족, 장해 7급 이상의 중증장해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금은 물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매 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타 장학금 수령 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나 1가구당 자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혜자는 지원 제외)

신청자격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필승! 안전순찰 나왔습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기본'을 무시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종에 따른 필수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건설업근로자

추락사고 많아요

추락은 모든 치명사고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사람 키만 한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선 보호구 착용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우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요. 추락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 설사 근로자가 추락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음식업근로자

베임, 미끄러짐 사고 많아요

주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베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에 임하기 전, 수공구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베임방지 장갑'을 지급해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데요. 미끄러짐 사고 역시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물이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는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미끄럼방지 신발을 제공하세요!

청소근로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해요

사업장마다 작업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청소를 하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 끝에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근로자에게 미끄럼방지 신발을 제공한다면 더욱 좋겠죠? 참고로, 계단에 설치된 조명의 밝기는 75럭스 이상이어야만 시야 확보가 용이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요!

제조업근로자

끼임 사고 많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등 제조업에서는 기계의 사용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이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기계에 끼이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직격타를 입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덮개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비상 시 즉시 기계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상버튼을 설치해야 해요!

고객응대근로자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무리한 요구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 장소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지게차운전자

충돌사고 많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화물을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지게차는 앙증맞은 생김새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게차에 의한 사고는 '보행자와의 부딪힘, 정비 · 보수작업 중 끼임, 지게차에 깔림, 운반하물의 떨어짐, 탑승자 떨어짐'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 안전한 운행경로를 확보하고, 자격증이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적재물을 너무 많이 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안전띠 착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배달근로자

교통사고 조심해요

서비스업의 증가로 배달근로자 역시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근로자가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서포트가 무척 필요한데요. 우선, 배달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배달동선을 미리 알려주세요! 익숙한 주행도로를 확보해야 근로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달 전,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빨리 배달할 것을 요구하면 조바심이 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배달을 재촉하지 않는 배려심도 당연하겠죠?



이 밖에도 업종에 따라, 다루는 기계에 따라, 다양한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각 사업장마다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선 수시로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즉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해집니다.

Hopeful



28
우리도 언젠가
늙을 텐데요

32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
결국 기술과 사람

36
마스크 만들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40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신발'을
소개합니다

44
100세 시대,
새로운 기술로
나를 재발견하세요!

48
요즘은
애견미용이 대세!

52
고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6
고용노동 뉴스

글 강진우 | 사진 이용기

우리도 언젠가 늙을 텐데요

마포노인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사 강천호 씨

퇴직 2년차에 접어들자 이제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천호 씨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노인 돌봄'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돌보는 길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생활지도사로 활동 중인 그를 만났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살가운 '생활 동반자'

말끔한 복장에 가방을 둘러메고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생활 전반을 돌보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마포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강천호 씨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화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것이나 궁금한 점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주 1회 이상 어르신 집에 직접 방문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외로움을 줄이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앱을 통해 집안 내 움직임 · 온도 · 전기 사용량 등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이죠.

"고령 인구가 늘면서 독거노인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생활상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분들을 돕는답니다. 생활지원사 한 명당 17명 내외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포노인복지센터에서만 45명의 생활지원사가 일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들을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생활지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간 겪은 여러 가지 일들로 외부인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수록 꾸준히 찾아뵙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강천호 씨는 오늘도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르신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운명처럼 들어선 노인 돌봄의 길

강천호 씨는 그간 많은 일을 거쳐 왔습니다. 1987년 포항제철에 입사한 그는 회사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따라 신세기통신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후 11년 간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창원의 선박기계 전문기업의 경영지원 및 전략 담당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선업계의 경기악화로 2017년 말 퇴직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간 미뤘던 일들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템플스테이, 여행,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것들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그 끝에서 찾은 답이 바로 '노인 돌봄'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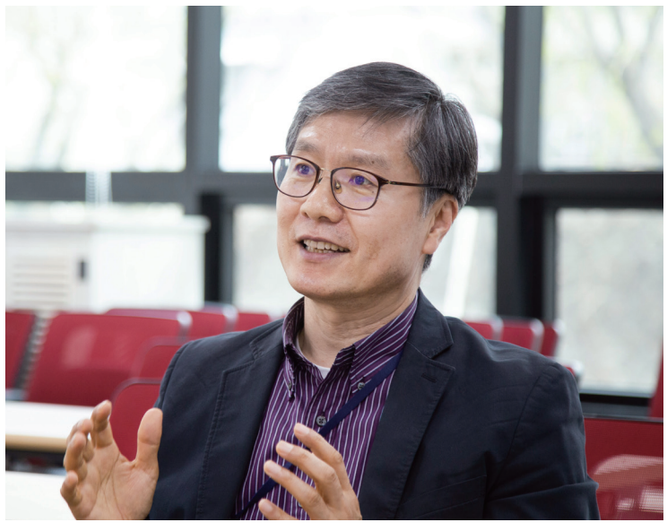
"창원에서 회사생활할 때 주말부부였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디지털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사과정 중 요양원이나 노인주야간돌봄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노인 돌봄은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87세가 되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돌이켜 보니 이쪽 길로 접어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될 정도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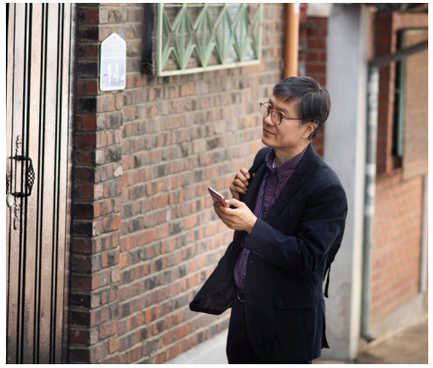
2018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강천호 씨는 관련 공부를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던 중 2019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신중년 특화과정인 시니어헬스케어과정에 참가, 4개월 간 노인 돌봄 관련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7월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시니어헬스케어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했고, 곧바로 서울시 구로구의 우리들주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했습니다. 나아가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돕고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로 적을 옮기고 지금껏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높여 나가는 전문성

노인 돌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면밀히 공부해야 하고, 생활습관 · 기저질환 등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시사 · 금융 등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의 지식과 정보는 물론, 노인 복지 및 지원과 관련 내용도 두루 알고 있어야 하죠. 너른 이해와 배려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천호 씨는 이런 점을 빠짐없이 채우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시작으로 요양보호사 1급 · 노인상담사 · 성격분석코칭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신중년 특화과정인 시니어헬스케어과정을 통해 얻은 실전







적 지식과 실습은 생활지원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연령대별로 생각과 행동양식에 특징이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맞춰 어르신들을 대하지 않으면 소통과 교감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죠. 시니어헬스케어과정은 노인과의 소통법, 노인 질환 대처 및 관리법,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지원법을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4개월 넘게 일하면서 이렇다 할 부딪침 없이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잘 사는 법인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지혜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웰다잉(Well-Dying)'도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다는 강천호 씨. 자신 또한 예순을 넘긴 만큼, 앞으로는 웰다잉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 전문성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의 노인 돌봄에 대한 열정이 놀랍고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응원합니다

Send a letter



"더 나은 노인 돌봄을 향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강천호 생활지원사님
리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근의 생활지원사들과 힘을 합쳐
원하는 노인들의 집을 차례로
대청소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기도 했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모범적이십니다.
지금의 초심을 꾸준히 가져가셔서
더 나은 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포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담당
김심자 사회복지사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

결국 기술과 사람



우수한 기술력으로
전기 · 통신 · 소방 설계 및 감리회사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세종기술단이라는
곳인데요. 그 중심에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5번째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세종기술단의 조욱제
대표입니다.

"전 지금도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데요?"

지난 4월, 155번째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 조욱제 대표를 찾았습니다. 30년 째 소방 · 전기 설계 및 감리 분야의 한길을 걸어온 전문기술인이기에 다소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탓일까요. 첫 만남부터 활짝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을 반긴 조욱제 대표는 취재진의 머릿속 이미지와 달리 밝고 따뜻하며 또 엉뚱한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아 지구와 우주, 그리고 은하계에 대한 왕성한 궁금증을 안고 살았다는 그는 당시에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운을 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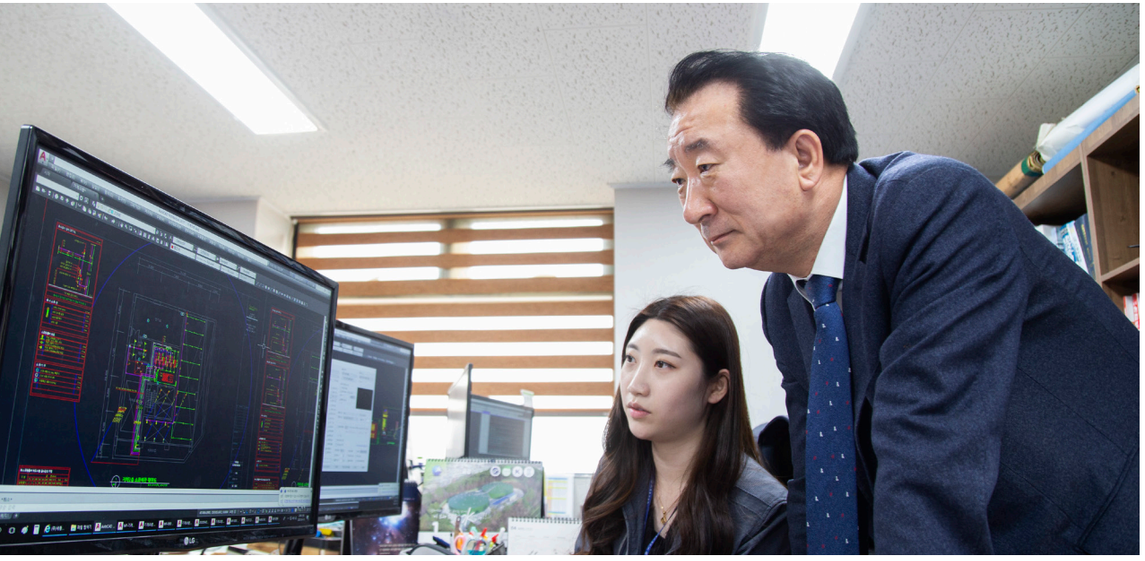
"어린 시절에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주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SF 영화를 보면 한눈을 팔지 못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에 늘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도 좋아한 것 같고요. 어릴 적 제가 정말 만화광이었거든요."

만화를 도대체 얼마나 좋아했는지 물으니 "장래희망이 만화가가 될 정도"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만화를 그리고, 또 스스로 그린 만화 속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며 살고 싶었다는 조욱제 대표는 "비록 만화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에 갈고 닦은 손재주를 설계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당시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기술인'을 강조하고 있었죠. 학교에 '기술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대통령 휘호가 적힌 탑이 세워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아버지께서 당시 저에게 이 분야로 가면 어떻겠냐고 살포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화 그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손재주로 이 분야에서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고민 끝에 진주공고 전기과에 진학한 조욱제 대표는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무난한 학교생활 후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졸업 이후 취업에 바로 성공했지만 예상 외로 그는 회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취직한 곳이 전기공사업체였어요.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 다른 동기들이 저보다 일을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 결과물을 보는 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 때 한 상사가 '욱제야, 넌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보다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대학에 가는 게 어떨까?' 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마침 저도 회사일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던 차였기에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도 컸기에 당시 스물한 살의 조욱제 대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자로서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당시의 삶을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당시 아버지의 권유가 없었다면, 그래서 공고에 진학하지 못했다면, 또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했을까요? 한 때의 결정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전 이 일을 하는 지금의 저와 제 현재에 참 감사하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마음

대학 졸업과 군 제대 후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조욱제 대표는 6촌 당숙으로부터 전기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열악하지만 설계의 매력에 이끌려 설비설계 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헌데 당시 전기 · 통신 · 소방 설계 업무에 대한 인식은 매주 낮았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 월급이 밀리는 날도 잦았지요.

"설계 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축설계'를 떠올립니다. 현재도 전기 · 통신 · 기계설비 · 소방 설계 업무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도급을 받는 구조에요. 그러다보니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회사를 30년 이상 운영해 왔지만 사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돌아보면 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전기 · 통신 · 기계 · 소방 설계가 건축물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소방설계법이 일부 독립돼 그나마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맞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시간은 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위기 속에는 늘 도약의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조욱제 대표가 회사를 설립했던 시간들 역시 그랬습니다.

"1987년 어느 날, 이전에 다니던 설비설계 사무소의 동료와 선배로부터 전기설계팀이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참에 회사를 만들어 대표를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죠. 며칠 고민 끝에 '그래, 어차피 창립할 거, 지금 한 번 해보자'고 마음을 굳혔어요."

㈜세종기술단이 본격적으로 출몰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해

'세종기술단'의 뜻을 묻자 조 대표는 "세종대왕의 기술적 능력과 어진 인품을 담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엔지니어(engineer)'를 한자로 풀면 '기술단' 이 된다며 두 단어를 합성해 '세종기술단'으로 사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지나서 IMF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헌데 사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시간이 바로 IMF 에요. 물론 절망에 빠진 기분이긴 했어요. 아무것도 남는 건 없고 빚만 쌓여갔으니까요. 하지만 낙천적인 성격 덕분일까요. 마음 한 구석에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나아질 미래를 맞기 위해 경영 태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조욱제 대표는 IMF 당시 모두가 경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때 적극적 태도로 변모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일의 경중을 가린 후 중요한 일에 매진하기로 한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덕분에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였고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가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 믿음이 갖고 오는 결과를 믿고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조욱제 대표. 그는 앞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는 선배 기술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 대표는 젊은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할 것' 그리고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 덕분일까요. ㈜세종기술단은 오늘도 겸손한 기술의 발전을 한 발 한 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나아질 미래를
맞기 위해 경영 태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글 임기현 | 사진 노사발전재단

마스크 만들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나라 부직포 업계의 1세대 기업 중 하나인 미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마스크 생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직원들을 위한 회사의 보듬 서비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나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미로의 똑똑한 시스템을 만나봅니다.

MIRO



(주)미로의 제품을 사용 중인 국내외 업체의 수

1,300 여 개

직원들의 자기계발 위한 교육비 전액 지원

100%

출근시간은 융통성 있게, 퇴근시간은 칼 같이!

PM6:00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요즘. 마스크 착용이 필수항목이 되어버린 소용돌이 속에서 ㈜미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로 직원들의 애사심엔 변함이 없습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직원의 워라밸을 놓치지 않는 회사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심하지 하지 않는 회사와 직원. 이들의 우호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 ㈜미로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로는 부직포 원단을 이용해 위생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에요. 일회용 마스크나 보호복, 미용거즈나 슈즈커버 등과 같은 위생 소모품을 주로 생산하죠. 요즘은 코로나19로 일이 바빠져서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불평 없이 잘 따라주고 있어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명감과 함께요."

구정은 대표가 이끄는 ㈜미로는 우리나라 1세대 부직포 업계 중 하나로, 부직포가 원료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행주와 수세미는 물론,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의료진들의 감염을 막아주는 위생보호복도 생산하죠. ㈜미로의 제품들은 워낙 성능이 뛰어나서 1,300여 개 국내외 업체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입니다.

제품군이 다양하다보니 각 제품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완벽하게 갖춰진 생산라인과 꼼꼼한 직원들의 디테일이 더해져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대중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워킹맘을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다

품질 높은 제품 말고도 ㈜미로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을 위한 워라밸 제도가 그것인데요. ㈜미로의 워라밸 제도에는 특히 '여성 근로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미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보니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회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 · 생활 균형 제도를 떠올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누구나 축하받아야 할 출산과 육아로 회사생활이 어려워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구정은 대표는 곧장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였죠.

"아이를 키우다보면 자녀의 어린이집 등 · 하원이나 병원 검진 등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





잖아요. 출근시간에 아이들까지 챙기다보면 아무리 서둘러도 지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회사 차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근로자 입장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육아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 반차를 쓰게 되면, 갑자기 생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메워줘야 하니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이러한 고충들이 쌓이면서 퇴사까지 고려하는 직원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놓치는 셈이니,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했어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그 첫 번째 열쇠였고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사유나 전환기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했습니다.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가 업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덕분에 ㈜미로의 여성 근로자들은 업무공백이나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건 결국 사람

숙련된 근로자의 지속근무를 돕는 것. 이것은 곧 ㈜미로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의 퇴사는 기업 입장에서도 '큰 손해'라는 점을 일찍이 깨달은 구정은 대표의 혜안인 셈인데요. ㈜미로의 워라밸 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일념으로 더 많은 배려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계발비 지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이 있다면, 아낌없이 교육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사내에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근무시간 중 언제라도 티타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이었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생활이 수월해진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생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과 가정에서 활력과 여유를 찾는 것만큼 회사의 큰 경쟁력이 있을까요? 카페테리아는 업무에만 매여서 활력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아주 작은 배려에 불과해요."

업무에만 매이지 않도록 '숨 쉴 공간'을 마련한 구정은 대표는 이와 동시에 '임산부와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도 앞장섰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마련해두어도, 육아 때문에 자리를 비운 여성 근로자를 향한 시선이 무겁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 말입니다.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전 직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공지했다는 구정은 대표는 제도 활용을 고민하는 직원에게는 개별 상담을 통해 독려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워라밸을 실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면 숙련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도 당연히 활발해지고요."

기업을 성장시키는 건 결국 '사람'임을 강조하는 구정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로가 왜 지역을 대표하는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미로 이렇게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융통성 있게,
퇴근은 칼 같이!
정시퇴근제

회의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회의시간 단축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개인역량 강화 위해
직원 자기계발비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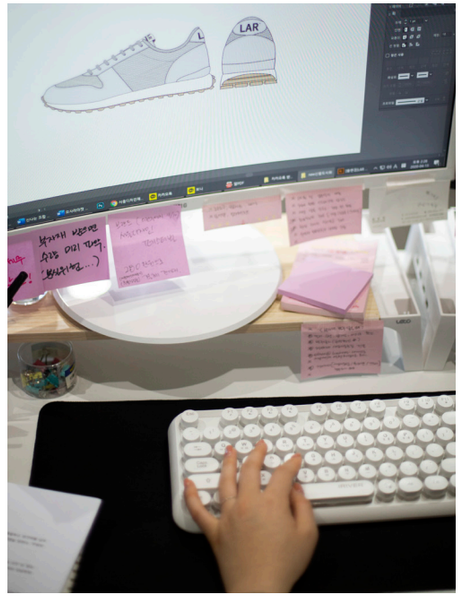


글 강진우 | 사진 이옹기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신발'을 소개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착하지만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에이알(LAR)의 결은 다릅니다. 친환경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진부함 속에서 패션 감각을 완벽하게 장착했으니 말입니다.



예쁜 신발로
지구를 지킨다

우리는 늘 자연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환경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친환경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멋이 없거나, 기능성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옷 · 신발 · 가방과 같은 패션 아이템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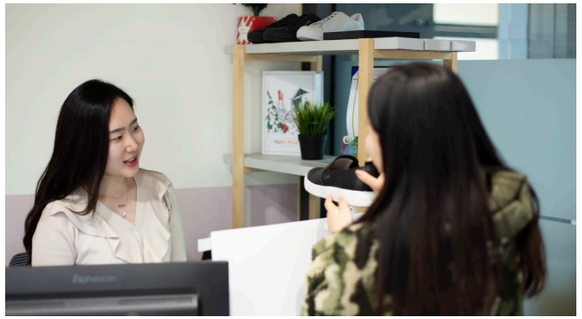
엘에이알(LAR)의 신발은 깔끔하지만, 트렌디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단순함의 미학'이랄까요? 신어보면 푹신푹신한 게 발바닥을 잘 받쳐 주고, 방수 · 방오 등의 기능성을 갖춘 데다가, 오래 걸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신발을 만드는 재료 대부분이 친환경 소재라는 사실입니다.

"신발 제작에 사용된 가죽은 각종 제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가죽을 분쇄해 만든 재생가죽입니다. 한 켤레 분량의 신발끈을 만드는 원사는 500ml 페트병 한 개로 만들었죠. 나무의 건강한 생장을 위해 벗겨내는 코르크 껍질과 천연 고무나무 원액으로 깔창을 만들었고, 신발 밑쪽을 감싸는 아웃솔(Outsole)은 4개월 이내에 88%가 생분해되는 소재입니다."

엘에이알이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로 중무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재생가죽에서 시작해 하나씩 품목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올 4월 아시아 최초의 100% 친환경 신발 시리즈 'LAR EARTH'와 'LAR OCEAN'을 출시했습니다. '지구'와 '바다'를 이름으로 삼은 이 신발들은 멋과 함께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설립된 기업

LAR은 'Look Around'의 약자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엘에이알을 이끄는 계효석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회사가 만든 패션 아이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느끼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독특하면서도 쉬이 따라하기 힘든 엘에이알의 비전은 계효석 대표의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패션을 공부하던 그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근처의 산과 바다를 오가며 큰 위안을 얻었는데요. 유학 후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우연히 떠난 동남아 지역 봉사활동에서 그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고난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보는 순간 미국 유학시절의 자신을 떠올린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웃들과 자연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 패션과 친환경 소재의 접목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널리 퍼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엘에이알은 2017년 4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환경 소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연히 지인이 재생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모습을 봤고, 이때부터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하나둘씩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코르크 껍질을 활용한 깔창 제조법과 디자인에 대한 특허 2건을 출원하기도 했죠. 다행히 많은 분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2018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고요"

엘에이알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신발이란?**



계효석 대표

우리 회사명에는 '주변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과, 신발 구매가 기부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객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발을 통해 이러한 측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좋은 신발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전소현 디자이너

신발은 중요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만큼, 무조건 예뻐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신발이라고 해도 모양새가 떨어지면, 저부터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젊은 분들에게 친환경 제품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디자인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보민 디자이너

무슨 일을 하든 발이 편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고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편안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코르크 껍질 깔창은 특유의 편안한 착용감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안승은 매니저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환경보호에 민감한 청년층에게 상당한 구매 이유로 작용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신발은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신발이라고 자부합니다!

'글로벌 친환경 패션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다

엘에이알의 주변 돌아보기는 친환경 소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켤레당 5천 원을 보육원에 기부하는데, 기부자명에 구매 고객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엘에이알 신발을 구매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조금이라도 더 퍼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효석 대표의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서 함께 사는 삶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약한 힘이나마 물질만능 사회를 바꾸는 데 보태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주변에서 되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더군요. 덕분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엘에이알은 최근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방 'LAR PAPER'은 3월 30일부터 크라우드펀딩에 돌입했고, 9월에는 과테말라 천연고무로 만든 런닝화 시리즈 'LAR FOREST'를 출시할 예정이죠. 재활용 울로 짠 니트도 가을께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에 갇혀 촌스럽고 질이 낮은 제품을 개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이기 때문에 멋과 기능성이 더욱 빛나는 패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엘에이알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친환경 패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PROGRAM 1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



글 황정은 | 사진 박정우

100세 시대, 새로운 기술로 나를 재발견하세요!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문화와 기호가 생겨난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졌지요. 서울강서캠퍼스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 앞에 선 중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헬스케어'와 '글로벌 한식조리'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배우는 새로운 기술,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강서캠퍼스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령인구의 건강 보호를 돕는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서캠퍼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은퇴 후 타인의 건강을 도움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까요. 이곳의 수업은 수강생들의 열기로 언제나 뜨겁습니다.

교육과정

❶ 신체활동지원실습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과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은 주로 휠체어 혹은 목발 등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이동시킬 때 주의할 점을 배웁니다.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경우 불편한 다리와 손을 먼저 파악한 후, 그렇지 않은 신체에 힘을 디디게 한 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❷ 신체청결지원 실습

기저귀 사용 돕기, 구강청결 돕기, 옷 갈아입히기 등 대상자들의 개인위생을 돕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간혹 대상자들이 물 수 있어, 이를 조심해 머리감기기, 목욕시키기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❸ 인지활동지원보조 실습

문제행동 대처방법,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방법, 인지자극훈련(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훈련,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이름 맞추기, 선 따라 그리기)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림과 단어를 매칭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의사소통 교육, 인지기억 테스트를 위한 질문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❹ 임상기초실습

인간의 몸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일인 만큼 신체기관에 대해 해부학적 지식을 보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잘 살피고 돌봐야 하는 만큼, 스스로의 몸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❺ 노인보건관리 실습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대화법을 배워 대상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줍니다. 건강한 스킨십을 통한 정서적 지원, 손 유희를 통한 정서 발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와 깊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
김세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시니어헬스케어과정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27명의 수강생이 4개월 동안 요양보호개론과 특수요양 등을 배우는 데 240시간 및 영양강화 교육 240시간, 총 480시간을 교육에 쏟게 됩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나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오시는 분도 많고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Q. 취업 가능한 산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센터 및 요양원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요즘은 재활병원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1주일 교육 후 장애인 활동 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도울 수 있게 됩니다.

Q. 중년층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사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 요양보호사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대상자를 꼼꼼하게 케어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PROGRAM 2

글로벌 한식조리과정





음식에 대한 기호와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외식 산업 역시 다채로워지는 추세입니다. 다양해지는 시장의 분위기만큼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그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죠. 카페에 가면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의 바리스타가 멋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자연스러운 주름이 밴 노년의 서버가 편안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것처럼요. 강서캠퍼스 글로벌 한식조리 과정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개설된 새로운 신중년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강서캠퍼스에만 개설됐기에 희소성도 크고 수업의 질은 더욱 높아 올해 설립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솔솔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강서캠퍼스 글로벌한식조리과정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볼까요?

교육과정

❶ 한식 국 · 탕 조리 실습

한식의 기본은 육수인 만큼 맨 처음으로 육수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고기를 우려낸 물을 육수, 채소를 우려낸 물을 채수라 부르는데, 육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찬물에 고기를 우리도록 합니다. 뜨거운 물에 우리면 고기 단백질이 응고돼 깊은 맛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고기보다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너무 잘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어야 국물이 깔끔합니다.



❷ 양식 : 육류 조리 실습

양식 요리의 메인은 단연 육류 요리입니다. 고기를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마리네이드(marinade)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식에서 고기를 '재운다'고 말하는 과정이 바로 양식에서는 '마리네이드' 인 것이죠. 올리브 오일과 향신료, 허브 등을 이용하면 고기의 잡내가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❸ 바리스타 : 스티밍 실습

바리스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티밍 실습을 배웁니다. 우유 스티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와 각도입니다. 직각이 아닌 20~30도 기울인 각도에서 스티밍을 해야 부드러운 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라떼류에 적합한 온도 60~65도의 온도를 지키도록 합니다.

❹ 제과 : 과자류 실습

제과제빵 분야에서 빵을 발효하는 것은 제빵, 발효가 필요 없는 것은 제과 분야입니다. 제과에는 생과자, 케이크, 머핀, 스폰지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제과류 실습에서 중요한 점은 오버(over) 반죽을 하면 안 된다는 점과, 빵 굽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빵이 오히려 부풀어 오르다가 꺼지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하락합니다.

글로벌한식조리 과정
한은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7명의 수강생이 4개월 동안 4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장실무 실습을 90% 이상 편성하여 한식과 양식, 바리스타와 제과 과정까지 알려주는데요, 퓨전 카페, 브런치 카페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제과, 양식과정을 추가했습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나요?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 명예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오시지만 목표는 한 가지, '새로운 인생2막'을 설계하러 오신답니다. 최근에는 남성분들 비율이 증가했어요. 현재 27명 정원 중 여성이 14명 남성이 13명입니다.

Q.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중년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주로 어린이집, 학교 급식, 퓨전 레스토랑, 시니어 카페, 한식집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간혹 메뉴 컨설팅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년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기술과 성실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 강진우 | 사진 이옹기

요즘은 애견미용이 대세!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566만 가구로 전체 2천만 가구의 25%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애견미용은 반려동물을 예쁘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에요. 올해 1월부터는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증되며 전문성과 전망성을 두루 인정받았다는 사실! 먼저 최고의 애견미용 전문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애견미용은 '반려동물의 털을 예쁘게 깎는 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반려동물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라면 아름답고 건강한 애견미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애견미용숍 창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김초균(수료생, 33세)



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일을 그만두고 휴식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려견과 함께 여유를 즐기다가 '애견미용을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에 부담 없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곧바로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을 땄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육기관의 배려로 기술이 손에 익을 때까지 다양한 실전미용을 연습하고 있어요. 현재는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에 6월에는 무사히 미용숍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아이들을 돌보니 확실히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은희(수강생, 52세)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를 네 마리 키운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든 아이들을 미용숍에 맡길 수 없어서 집에서 미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애견미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내친김에 일도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길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애견미용을 배운지 두 달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적용해봤더니 강아지들이 전보다 덜 힘들어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전문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손을 내민 두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에 자리한 'HS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개원 후 애견미용 분야의 전망성을 높이 평가해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현직에서 활약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실전적이면서도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안전 · 위생 · 기자재 관리

반려동물의 털을 깎는 만큼 안전과 위생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덕목입니다. 특히 미용에 쓰이는 각종 기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하게 소독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 소홀하면 피부병이나 기생충을 건강한 반려동물에게 옮길 수 있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 상담

애견미용은 결국 서비스 분야이기에 견주들과 원활하게 상담하는 방법도 꽤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피부병 등을 모르고 있다가 미용 후 '여기서 걸린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반려동물 목욕은 단순히 강아지를 씻기는 일이 아닙니다. 목욕 전 아이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골라야 하고, 귀 청소 · 발톱 정리 · 발바닥 털 정리 · 항문낭 짜기 등도 두루 신경 써야 합니다. 말하자면 '반려동물 기본 케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어쩌면 미용보다도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 · 염색

반려동물 미용 시에는 '디테일'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쁘게 털을 깎아 놓고 기본 미용에 속하는 귀 청소와 발바닥 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염색 시에도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고, 피부병이 있으면 견주에게 염색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애견미용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이기은 원장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분위기로 인해 반려동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애견미용의 미래 또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견미용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기계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람이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완성해야 하는, 일종의 예술이죠. 애견미용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호텔 펫시터,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숍,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관련 분야에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토대로 애견미용숍을 창업하기도 하죠. 반려동물 시장의 유망성 덕분에 어떤 쪽으로 진출하든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을 획득한 후 현장 경험을 5개월 간 쌓으면 2급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고, 2급 자격증을 딴 후 1년이 지나면 1급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HS평생교육원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능동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HS평생교육원(http://www.hs8887585.com 또는 032-888-7585)으로 연락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 불확실성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고용노동부는 1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 지원과 함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대책인데요. 그 핵심내용을 살펴봅니다.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킨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합니다.

대상	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 원 × 3개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역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대상	지원수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 ·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일감이 끊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활이 어려운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요건	지원 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 ·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월 50만 원 × 3개월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 · 공간 · 작물 ·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취약계층(실직자, 휴 · 폐업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합니다.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분야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인 경우 지원합니다.

민간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 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처럼 IT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 업무에 대해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조건
최대 월 180만 원 (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청년 일경험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조건
월 80만 원 × 6개월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조건
최대 월 100만 원 × 6개월(주 40시간 기준)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역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요건은 완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실업자 등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 또한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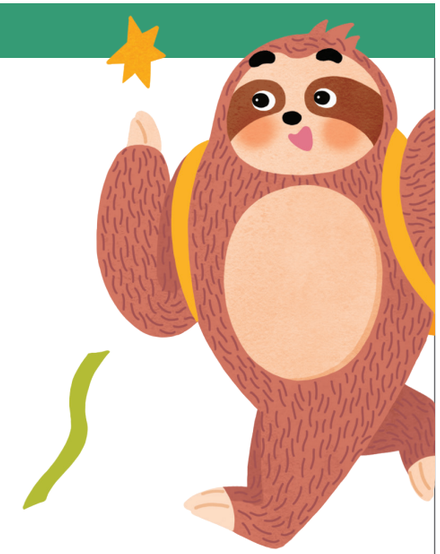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 직업훈련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월 50만 원 ×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저소득층: 7→10만(+3만), ▲특고 · 프리랜서 등 특정취약계층: 2→5만(+3만),▲청년층: 8→13만(+5만)	(+17만 명, 0.3조원)

News









① 화상면접으로 청년 채용에 앞장서는 (주)이스트소프트, 장관이 다녀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알약'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IT기업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절차를 중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면접을 통해 청년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이스트소프트 화상면접 채용현장을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유연근무,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 ·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기업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채용 절차가 중단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 채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청년 채용에 힘써주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선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상면접 등의 '언택트' 방식의 채용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해외취업 애로사항, 고용노동부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서울 강남구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화상 상담서비스, 센터의 방역상황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취업 관련 기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날 현장 간담회에는 호주, 베트남 해외취업 연수기관, 미국 취업 관련 기관, 일본 현지 산업인력공단 주재원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국별 해외취업관련 현지 상황 및 연수과정 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임서정 차관은 "해외현지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현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해외취업 청년, 해외취업 관련 기관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므로,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해외취업 지원 방안

- 비자발급 보류, 해외취업 취소 상황 집중 모니터링 및 온라인 고충센터 운영
- 해외취업 보류 연수생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취업 교육 등 연수서비스 연장제공
- 해외취업 연수과정 화상전환 적극 지원 및 연기 권고
- 취업박람회 등 집체행사 언택트 방식으로 적극 전환
- 재외공관 및 16개 해외 K-Move센터를 통한 노무상담 등 지원
- 해외현지 연수자에 대한 귀국비용 일부 지원

③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알립니다



2020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증가폭 둔화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 증가(+2만 4천명, +3.4%) 보다 취득자수 감소(-10만 8천명, -13.5%)가 주된 원인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및 연기, 휴업 · 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등의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는 상용, 임시직만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장 전체 영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영향은 이동 · 외출 자제의 직접적 영향으로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아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폭이 둔화됐으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6천명으로 '보건복지'(35.3천명), '제조업'(19.1천명), '건설업'(15.6천명), '도소매'(14.8천명), '교육서비스'(14.6천명)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④ 고용부 장관,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지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 · 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인가할 예정입니다.

5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관련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실려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법, 근태관리 목적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6 기업 맞춤형 훈련으로 '경력 있는 신입사원'을 양성합니다



기업은 직무 관련 경력과 경험을 가진 신입직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구직자가 직무를 경험 할 수 있는 경로는 실습 사원(인턴)이나 임시 부업(아르바이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구직자에게는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32개 훈련과정(2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훈련기관에서는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기업의 실제 직무내용을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과제(프로젝트) 훈련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기업에서 생산 · 공급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훈련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참여방법 등은 기업 맞춤형 국가훈련 참여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 www.hrd-ne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Healing



62 영화 〈정직한 후보〉와 노동의 단상

66 비대면 채널자를 위한 필수 단어장

68 앞좌석이냐 뒷좌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70 일자리도 불안정한데, 임금까지 불안정하면 쓰나요

74 사회적 거리 두기 갑갑할 땐 취미키트가 있습니다

76 치약에 가글까지 하시면 누런 이가 됩니다만…

78 아이들과 함께하는 '으른의 달'

82 애독자 모의고사

영화 〈정직한 후보〉와 노동의 단상

지난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는 잘 던지셨나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가운데, 정치계의 삼태만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후보〉인데요. 거짓말이 제일 쉬웠던 3선 국회의원 '주상숙'에게 벌어진 거짓말 같은 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제까진 뻥쟁이, 오늘부턴 정직한 후보?!



세상에서 거짓말이 제일 쉬웠던 3선 국회의원 상숙(라미란 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된 것이죠.
최고의 무기였던 '거짓말'을 잃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녀의 입에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엉뚱한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김영란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닉재산도 어마어마했던 상숙. 각종 비리를 '말재주' 하나로 잘 숨겨왔는데, 이젠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됐으니 선거활동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배경으로 한 리얼 코미디답게 영화 곳곳에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기 전 상숙이 벌였던 놀라운 비리 현장들이 속속 관찰되는데요.
특히 자신의 비리를 6년째 캐고 있는 경쟁자 남용성 후보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쓸쓸한 주식 정보를 흘립니다. "제가 집 한 채 장만해드린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죠?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은 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다음 세대 아이들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김영란법 잊지 마세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당시 추진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니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김영란법에서는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출근 모드



거짓말 못하는 상숙 옆을 불철주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숙이 국회의원 4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덩달아 설 자리를 잃게 될 희철(김무열 분)입니다. 정치를 향한 일념으로 벌써 몇 년째 상숙을 보필하는 희철의 근무시간은 그야말로 '아무 때나'인데요. 심지어 어둑어둑해진 밤 술자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숙의 할머니까지 알뜰살뜰 챙깁니다. 상숙의 비서로 보자면 아주 훌륭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밤낮 없이 불려 다니는 희철에게 정작 본인의 할머니를 챙길 시간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둠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52시간 근무제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선거캠프라는 특수성이 있다하지만, 일반기업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죠.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야근시간을 합쳐도 주52시간을 넘길 수 없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 중

갑작스런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재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고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법이 적용됐습니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될 방침인데요. 다만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계 노동현장도 정직하게 변하는 중



Point

근로계약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근무 등 모든 사업군에서 지켜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깔깔 대고 웃는 사이, 시간 순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쾌한 영화 〈정직한 후보〉의 촬영환경은 어땠을까요. 영화의 내용처럼 촬영현장 역시 유쾌했을까요.
사실 '작품을 향한 순정'을 이유로 한 영화계의 열악한 근무시간은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루 이틀은커녕 몇 주, 몇 달씩 야근을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으니까요. 이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을 앞두고, 영화계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된 끝에, 영화판에서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경험한 영화 스태프 비율은 53%에 달했습니다. 겨우 절반을 넘긴 수치이긴 하지만,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빼고 극장에 걸리는 상당수의 한국영화는 근로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프리랜서로 여겨지던 영화 스태프가 이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시작점도 바로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임금액 및 지급방식,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영화가 여러 편에 달하지 않았을까요? 잘 쉬어야 일도 잘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자를 위한 필수 단어장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채널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개학이 미뤄진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로 공부도 하고 말이죠. 비대면
채널자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시사용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클릭 베이트 Click + Bait

'혹'하는 제목에 이끌려 클릭했는데, 정작 내용은 '별것 아닌' 기사들이 많죠? 클릭(Click)과 미끼(Bait)의 합성어, 클릭베이트는 말 그대로 '클릭을 위한 미끼'를 뜻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을 끌어들여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콘텐츠인 건데요. 최근에는 기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웹소설에서도 클릭베이트 콘텐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품질 콘텐츠가 만연하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2016년부터 클릭베이트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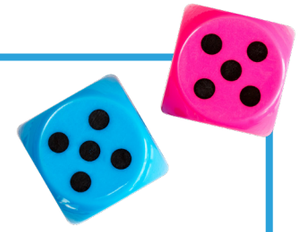
언택트 경제 Un + Tact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contact와 부정의 의미를 가진 un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사람 간 접촉이 없다는 뜻인데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음식을 먹고, 영화관 대신 '안방극장'을 즐기는 등, 누군가의 서비스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점에서 종이책을 구입하지 않고 e북 리더기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해 읽는 것 역시 언택트 경제에 포함되는데요. 손가락 끝에서 편리하게 이뤄지는 경제활동,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빅 블러 Big + Blur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지금은 전자상거래, 음악 스트리밍은 물론 배송, 금융사업 등까지 진출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의 경계가 없는' 기업이 된 건데요. 이렇게 기업의 사업 분류가 애매해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말합니다. 사진이나 글씨 등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블러(Blur)' 현상에서 따온 말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빅블러에 속하는데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결 간편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은 기성세대들을 위한 혜안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불로소득 不勞所得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불로소득'이 요즘에는 시사용어로 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도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원을 통칭하는 건데요.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불로소득의 경제학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살짝 다르다는 건데요. 예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라면, 복권을 사들인 행위 자체가 투자에 해당하므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복권 당첨금은 불로소득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세금을 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프롭 테크 Prop + Tech

'좋은 집을 찾으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기존 상식을 확 뒤엎은 온라인 서비스가 있죠? 바로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프롭테크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프롭테크 산업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 플랫폼 시장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추진 구역의 건물을 직접 가지 않고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앞좌석이냐 뒷좌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상사랑 같은 차를 탔을 때, 앞좌석을 양보해야 할지 뒷좌석을 양보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는 분, 계신가요? 회의실에선 또 어떤 좌석을 남겨놔야 상사가 편안해 할까요? 이깟 '자리' 하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자리 에티켓을 공개합니다!



뒷좌석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승차 매너

상사와 함께 같은 승용차를 타게 된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상석을 찾는 일입니다.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별에 따라 상석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상석은 뒷좌석 오른쪽 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뒷좌석 왼쪽, 운전자 옆 좌석이죠. 하지만 상사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면 상석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승자 중 직책이 가장 높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으세요. 그래야 상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편, 직급과 상관없이 '배려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승자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있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럴 땐 상석의 위치와 상관없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말석이에요!

회의실 자리 매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입구와 가장 먼 자리가 상석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잦은 문 앞자리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편안함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와 별개로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 등을 하는 자리라면, 출입구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크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상석으로 봅니다.

회의 시 상석의 위치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창문이 있는 회의실이라면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고요. 전망은 좋은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 눈이 부시다면 같은 자리라도 말석에 해당합니다. 출입문의 반대편을 정하기가 애매한 구조이거나 창문이 없어 상석과 말석의 구분이 애매하다면? 의자가 적은 쪽을 상석으로 생각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조작버튼 바로 앞에 서세요

엘리베이터 자리 매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상사! 쭈뼛거리다 가장 안쪽에 선 경험들 있을 텐데요. 엘리베이터에도 상석과 말석이 있답니다. 앞서 승용차와 회의실 자리 매너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편안한 자리가 상석, 가장 불편한 자리가 말석이 되겠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는 아마 조작버튼 바로 앞자리겠죠? 반면, 조작버튼의 대각선 뒤쪽이 가장 상석이 되겠습니다. 단, 조작버튼 앞쪽에 있다 보면 뒤쪽에 있던 상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길을 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할 것 없이 잠시 내려서 길을 열어 드리고 다시 탑승하면 되겠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평가가 오가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정글 같은 비즈니스 세계! 디테일한 배려로 좋은 이미지까지 챙겨 봐요!

명함매너, 잘 지키고 계신가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처음 만나게 된 날. 가장 상석에 자리를 안내했는데 명함매너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지 타격이 매우 크겠죠? 명함매너는 직장인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이랍니다. 명함 주고받을 때, 매너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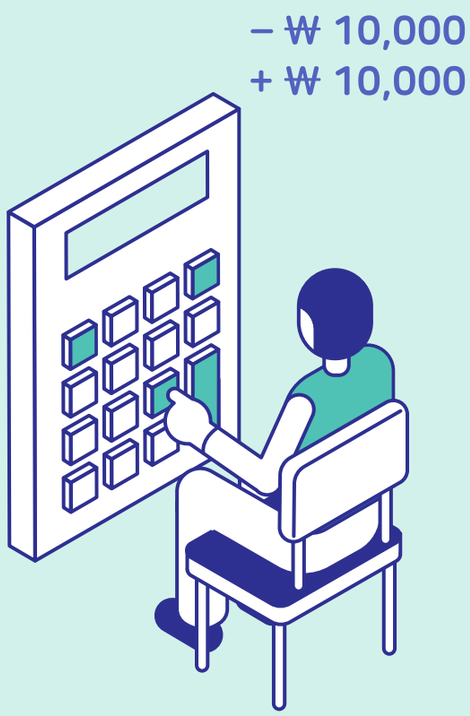
- ☐ 명함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일어서서 두 손으로 하는 편이다.
- ☐ 명함을 건넬 땐 상대방이 바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 ☐ 가슴과 허리선 사이 위치에서 교환한다.
- ☐ 명함을 받을 때 가벼운 목례를 한다.
- ☐ 명함을 받은 후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보기 좋은 위치에 바로 올려놓는다.
- ☐ 상대방의 명함에 메모를 하지 않으며, 꼭 메모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양해를 구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X 표시를 하셨다면, 명함매너 익히기 연습이 필요해요!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일자리도 불안정한데, 임금까지 불안정하면 쓰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임금까지 불안정해지면 너무 슬프겠죠?
잘 알아야 내 임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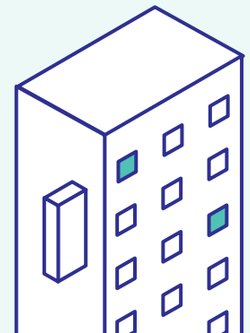
Q1 코로나19로 회사가 한가해졌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사장님이 월급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대신 한 달에 절반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용돈도 벌 겸 1인 기업을 냈는데요. 운이 좋게도 사업자를 낸 후 매출이 발생해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절 부르시네요. 직장인이 1인 사업자를 내면 불법이라면서 자진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월급이 줄어 생활은 궁핍한데… 애초에 절반의 월급도 절반의 출근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A_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에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무급으로 휴업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겸업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겸직금지는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약정을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퇴사 요구를 받았는데요. 근로자는 먼저 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②겸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퇴사요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③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정리하고 향후 정상 근로의사를 사용자에게 표할 필요가 있으며, ④겸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퇴사를 강요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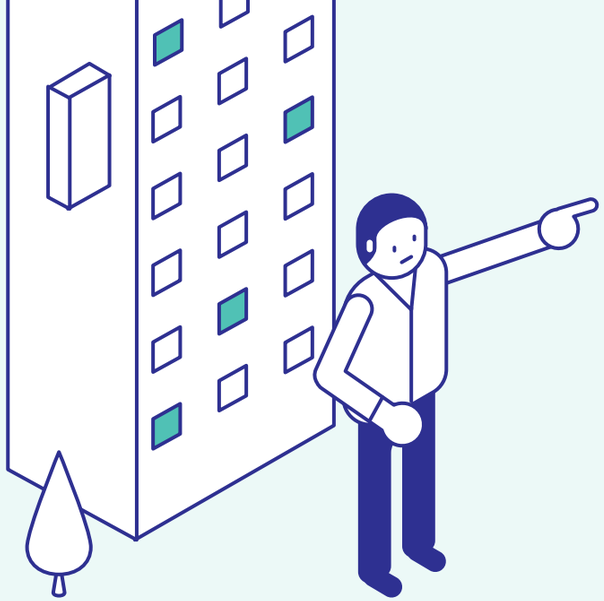
Q2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다쳤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돼있는 계단으로 시멘트 가루를 옮기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다른 업무를 달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집에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주질 않는 겁니다. 정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일 못하는 사람을 써서 괜히 이런 사고가 났다며, 욕만 먹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하… 정말 사람이 싫어집니다.

A_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급인은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장치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근로자는 그 신분이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바, 일용직 근로자가 보호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의 유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치료한 의료기관(통상 원무과)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요양기간 중의 임금을, 치료한 병원에는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한편, 산재보상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자기부담금 등이 발생하여 재해 근로자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당초 재해의 원인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3

5인 사업장에 출근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당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에 익지 않았을 뿐인데도, 매일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제 욕도 심심찮게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대놓고 욕을 하길래 저도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말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요청을 해 삼자대면을 했을 때, 사장님이 이것을 빌미로 저를 엄청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부당해고 같은데, 욕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인격모독까지 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A_ 판례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어야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거쳤다거나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욕설, 험담 등을 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조치, 법적 처벌 등에 관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전 직장 사장이 전화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러 하루 이틀 정도 회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페이퍼로 인수인계 사항을 모두 정리하고 나온 터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된 페이퍼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수고비는 어떻게 하실거냐 물으니 '인수인계 하는 데 무슨 수고비냐고' 되묻습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무급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A_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또는 인사명령에 의해 수행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 후임자나 해당업무 책임자에게 자신의 수행업무를 정리하여 넘겨주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인수인계 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나, 퇴직 전 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인수인계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도 추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장에서 정한 인수인계 방법이 아니거나 당시에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자의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도 추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이후 추가 인수인계를 할 때에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한 경우, 그러한 이유로 퇴사 이후 추가 인수인계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갑갑할 땐 취미키트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 '혼자 놀기'의 스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나만의 취미생활, 뭐 없을까요?



비누 사러 마트 갈 필요 없어요

천연비누 키트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해야겠지만, 생필품이 뚝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감행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비누가 떨어져서 마트에 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천연비누 키트와 함께라면 말이죠! 계량도구와 오일 등 각종 준비물이 필요한 다른 비누 키트와 달리, 천연분말에 액상을 넣으면 완성되는 '고체형 비누'인데요. 찰흙처럼 조물락 조물락거리는 재미가 일품이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그만이죠!

여기서 구경해요

https://shsoap.co.kr



생화보단 종이꽃

페이퍼플라워 키트

봄의 전령사가 찾아왔지만, 일주일이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게 왠지 마음 아파 꽃 한 송이 사기를 꺼려하는 편이라면 '생화보다 더 예쁜 종이 꽃'은 어떨까요. 실제 꽃보다 수십 배 이상의 크기로 만들 수 있어 인테리어 장식으로도 그만인데요. 만드는 법도 미리 재단된 종이 꽃잎들을 조립하면 되는 수준이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일상이나 돌상을 직접 만든 종이꽃으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해요!

여기서 구경해요

https://www.bpaper.co.kr



공방 안 가고 만든

나무반지 만들기 키트

반지는 소재가 무엇이든 간에 '도구 없이는' 완성하기가 힘든데요. 나무반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당히 형태가 잡힌 목재조각을 사포로 쓱쓱 문지르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각이나 원모양 등 원하는 반지의 형태를 선택하면, 반가공 형태의 목재조각이 사포와 오일 등과 함께 배달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있기 때문에 사포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반지의 완성도가 달라진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죠?

여기서 구경해요

https://hobbyinthebox.co.kr



색칠공부 후 기부하는 재택봉사

색칠공부책 만들기 키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수로 실천해야 하는 요즘, 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내하고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땐 '재택봉사'가 어떨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법인 '세상아이'에서 '색칠공부책' 만들기 키트를 구입한 후 색칠을 완료하고, 이것을 다시 세상아이 쪽으로 보내면 끝! 색칠공부책은 단순히 색연필로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엮는' 재미있는 형태의 색칠도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색칠공부책은 요양시설이나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돼 무료한 일상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물론, 치매예방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재택근무하는 김에 재택봉사도 덤으로 하는 훈훈한 5월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기서 구경해요

www.sesangi.org



금손, 똥손 누구나 뜹니다

수세미 뜨기 키트

뜨개질은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가 도안을 못 알아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세미 뜨기부터 시작한다면, 어느새 도안 보기도 누워서 떡먹기가 될지 모릅니다. 뜨개질도안 보는 방법, 코바늘 잡는 방법 등 뜨개질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알아주는 똥손이에요~"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습용 실도 키트 안에 동봉돼 도착한다는 사실! 심지어 키트 안에 담겨진 재료들로 최대 10개의 수세미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구경해요

https://hobbyful.co.kr



치약에 가글까지 하시면 누런 이가 됩니다만…

뼈의 색은 본디 하얗습니다. 치아는 뼈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본디 하얘야하지만 안타깝게도 새하얀 치아를 갖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양치 후 가글까지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치약과 가글은 친하지 않아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어금니는 늘 충치의 근원이 되곤 합니다. 오래 닦는다고 해도 애초부터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이니, 치석 제거가 될 리 만무하죠. 이런 이유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양치 후 가글'은 잘못된 치아 관리법이랍니다. 치약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가 가글의 염화물과 만나는 순간, 치아 변색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나 있답니다. 양치 직후 가글을 사용하면, 치아의 미세한 구멍 속에 남아있는 치약 성분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꼭 가글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가글 대신 소금물로 헹굴 것을 추천합니다.

양치 건너뛰고 가글만 해도 안돼요

양치와 가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모로 간편한 '가글만 사용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좋은 치아 관리법은 아닙니다.

가글에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뿐더러, 입 안에 있는 세균과 유익한 균 모두를 죽이기 때문이죠. 유익균이 사라진 입 안은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곰팡이균을 막아낼 수 없어 입천장이나 혀에 궤양이 발생하는 '구강 진균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제품에는 알코올 함유량이 많아 구강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글, 이렇게 사용해야 안전해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치아 변색을 가져오는 가글의 올바른 사용법은 '하루 두 번을 넘기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용이라고 해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선, 입 안에 남아있는 가글액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해균을 99%까지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효능 때문에 자칫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글 후 30분 내 음식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균과 소독 효과를 내는 알코올 과산화수소를 함께 섭취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가글은 하루 두 번, 사용량은 10~15ml 정도로 소량만! 잊지 마세요.

tip

양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❶ 칫솔에 물 묻히지 마세요



칫솔에 물을 묻힌 뒤, 치약을 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이 묻은 칫솔은 거품 생성을 촉진시켜 오히려 이를 깨끗이 닦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마른 상태의 칫솔에 치약을 묻혀 사용하고, 10회 정도 입 안을 헹궈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계면활성제 성분을 말끔하게 제거하세요!

❷ 칫솔모는 45도 각도를 유지해요



분노의 칫솔질은 양치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기울여 닦아야 잇몸과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어금니 안쪽은 닦기가 쉽지 않다보니 양 옆으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칫솔질은 치석 제거는커녕 치아를 마모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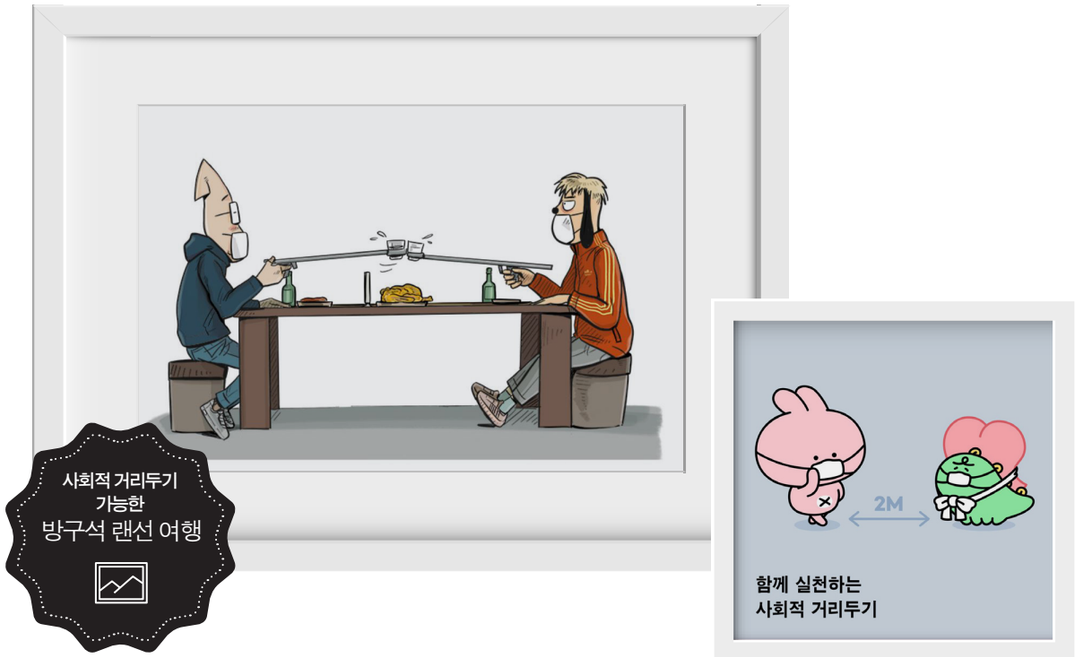
❸ 혓바닥도 양치 과정 중 하나에요



입 냄새의 원인은 치아 때문이 아니라 혀에 있는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혓바닥 안쪽은 세균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답니다. 혓바닥을 닦을 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닦아내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으른의 달’



아직은 방콕이 더 어울리는 5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하기가 꺼려진다면, 아이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한 아이템에 주목하세요! 어린이날과 으른의 달을 넘나드는 시간 속으로.





카카오 브런치 〈사회적 거리두기 랜선 전시회〉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다름 아닌 ‘본인 각자의 집’인데요. 코로나19로 외출 자제령이 내려져 문화생활이 쉽지 않은 요즘, 묘안이 돋보이는 전시회입니다. 아이와 함께하기에도 딱 좋은데요. 해당 전시회에서는 총 20여 명 작가들의 그림, 사진,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고요. 전시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브런치 모바일 앱과 PC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뉴욕메트로폴리탄 박물관 〈MET〉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기는 뉴욕도 마찬가지죠. 당분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 지경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뉴욕의 단면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랜선 전시회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뉴욕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온라인 전시(https://www.metmuseum.org)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360도 VR 기술로 실제 박물관에 입성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말발굽 소리나 칼이 부딪히는 소리 등 특별한 BGM이 생생함을 더해준답니다.

안방 세계여행 〈구삐씨의 행복여행〉

불행한 사람들 상담해주기가 직업인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헥터’는 홀쩍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은행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 등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 그는 행복의 진짜 의미를 찾았을까요? 항공길도 막혀버린 요즘, 상하이 · 아프리카 · 벤쿠버 등을 종주하는 헥터의 여정 속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세요!

아이와 함께 보기 딱 좋은 〈맘마미아〉

엄마와 딸의 인생 이야기가 보기 좋게 버무려진 이만한 영화가 또 있을까요? 결혼을 앞둔 딸 소피는 우연히 엄마의 일기장에서 아빠로 추측되는 세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손을 잡아줄 아빠가 그리웠던 소피는 엄마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소피의 아빠 찾기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까요? 멋진 그리스 배경에 신명나는 뮤지컬이 혼재돼있는 맘마미아로, 아이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족이 왜 소중하냐 물으신다면
가족 감동書

작가 30인이 바라본 〈가족은 힘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양귀자, 신경숙, 이승우, 이순권, 구효서, 김종광을 비롯해 서른 명의 유명 작가들이 '가족'을 테마로 쓴 산문 모음집인데요. '가족'이라는 표제 아래 늘어선 서른 편의 글들은 작가 자신의, 혹은 옆집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항상 살가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릴리 프랭키 〈도쿄타워〉

작가는 고백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노라고. 이따금 엄니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생겼다고. 어머니라는 절대적인 베일을 벗어냈을 때 드러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표정. 그간 엄니 홀로 좌절을 맛보았던 것,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들. 결코 완전하지 않은 한 인간의 탄식을 문득 깨닫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들의 어머니 혹은 엄마 혹은 엄니는 어찌 계시나요. 전화 한 통 걸으면 무척이나 좋아하실 것 같네요.



시간 순삭! 패밀리 보드게임



이런 자세 취할 수 있어? 〈요기〉

교육적이고 머리 많이 쓰게 하는 게임도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재미있는 보드게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요기'라는 보드게임인데요. 방식도 무척 쉬워요. 먼저 가운데에 카드 전체를 쌓아두고 한 사람씩 카드를 뽑습니다. 큰 소리로 미션을 읽고 곧장 그 자세를 취하면 끝! 요상한 동작 미션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문의 : 코리아보드게임즈 koreaboardgames.com)

놀면서 숫자 알기 〈셈셈 피자게임〉

영화도 봤고 책도 다 읽었는데 아직도 무료하다면, 게임 한 판에 20~30분이 휙휙 지나가는 시간 순삭의 필살기 '셈셈 피자게임' 어떨까요? 덧셈 뺄셈 카드를 나눠 가진 후 내 말이 놓여있는 보드판의 숫자만큼 다른 토핑 칸으로 이동하는 게임인데요. 3종의 토핑을 구하면 피자 1판이 완성되고, 3판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 승자가 된답니다. 어때요, 수학 공부 저절로 되겠죠?
(문의 : 행복한바오밥 www.happybaobab.com)

2020년 5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100

성명		전화번호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5월호에 있습니다.

1. 가족 중 누구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월 16일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이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것'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❶ 산업안전보건법
❷ 근로기준법
❸ 장애인고용법
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힌트
6페이지를 살펴보세요.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❶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
❷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
❸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해야 한다.
❹ 보호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힌트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4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은선 님 김윤희 님 신세호 님 최정윤 님
정창재 님 임산하 님 황성원 님
이미연 님 김희진 님 김규원 님

* 퀴즈 당첨자 분들깬 5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www.labor21.com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